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ivic Consciousness for Preservation and Re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in Jecheon

Author 이완건 Lee, Wan-Geon / 정희원,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s targeted at the people who live in Jecheon. It investigated the general term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the awareness of local architectural heritage, and the civic consciousnes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al heritage and townscape. And, it is aim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and townscape in Jecheon.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when the policy related to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in Jecheon is to be made and proceeded, it should actively promote and reflect the views of the citizens. Secondly, it should be to develop the available utilization programs and to find the metho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architectural heritage. Third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method which can give the economic benefits to owners and the enjoyment of culture to the citizens. Lastly, the long term plan will be required for a distinctive townscape in Jecheon. And, when modern architecture adjacent to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built, we should be considered the design which can be expressed the historicity of architectural heritage.

Keywords 제천시,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시민의식, 도시경관
Jecheon, Architectural Heritage, Preservation, Reuse, Civic Consciousness, Townscap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빠르게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삶의 흔적이 녹아있는 역사적 건축물들 가운데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물 특히 건축문화재들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근 건축문화재를 포함한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논리 보다는 문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생각되며 각 도시의 역사가 묻어 있는 건축물들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의 승패 여부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도시경관 차원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건축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아가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에 의해 건축과 도시가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외부 환경들에 의해 인간 생활은 한정되고 구속받게 되며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 생활양식은 얼마든지 개선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건축물 즉, 건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제천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정책에 일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일반사항, 지역 건축문화재의 인식도, 건축문화재와 제천시 도시경관과의 상관관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1-0007806)

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천시의 도시경관과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제천시의 역사와 건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 설문지를 통한 제천시 시민들의 건축문화재 의식조사, 4장에서는 시민의식 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제천의 역사와 건축문화재 고찰

2.1. 제천의 역사

제천은 동쪽으로 강원도 영월군, 남쪽으로 단양군, 서쪽으로 충주시, 북쪽으로 강원도 원주시와 접해 있으며,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역사가 깊은 지역¹⁾이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궁벽한 지역 여건에 따라 유배처로, 남한강에 연해 있었던 청풍은 수해로 인한 구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곳은 죽령을 넘는 육상교통과 남한강 수로에 따른 수상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²⁾ 삼한시대 는 마한의 영향, 4세기경에는 백제, 5세기 중반까지는 고구려, 6세기 중반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덕주산성, 온달산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삼국간 세력 쟁탈전이 벌어졌던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내제군, 고려 현종 9년에 청풍은 양광도 충주목, 제천은 원주임내로 편제, 조선시대 태조 4년에 청주목과 충주목을 충청도로 개편하면서 당시 제주³⁾를 충청도에 편입, 1896년에는 제천과 청풍을 충청북도의 군으로 변경, 1914년 총독부령에 의해 청풍군과 덕산면 일원이 제천군에 이속되면서 오늘날의 제천시⁴⁾ 경계를 확정지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140,676명⁵⁾,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40~44세가 제천시 인구의 9.3%, 20~24세가 8.7%, 30~34세가 8.0%, 35~39세가 7.7%, 45~49세가 7.6%의 순이며, 산업별 종사자율은 도·소매업(21.7%), 숙박 및 음식점업(14.9%), 제조업(11.1%), 운수업(10.5%), 교육 서비스업(8.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⁶⁾

2.2. 제천의 건축문화재

제천은 삼국시대 삼국의 격전지로 산성 이외에는 이전의 문화재를 찾아보기 힘들고 1895년 말 의병운동의 중심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07년 이강년 의병부대에 패한 일본은 그 보복으로 제천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제천은 원주보다 훨씬 시골이라고 듣고 있었지만 시내상가는 원주보다 고급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웬지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지역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1940년대 스즈키 에이파로(鈴木榮太郎⁷⁾)의 기록처럼 제천은 그 이후 차츰 개발되어 1960년대 말에는 <그림 1>과 같이 저층의 근대식 건물이 주를 이루는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85년에는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강 주변이 수몰되면서 이곳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지역의 건축문화재들이 <그림 2>와 같이 청풍문화재단지 내로 일부 이전되게 되었다.⁸⁾



<그림 1> 1969년의 제천시 전경 <그림 2> 청풍문화재단지 전경

<표 1> 제천시 건축문화재 목록 및 활용 현황(27점, 현재)

구분 지정	유형	문화재명	활용 (有·無)	비고	구분 지정	유형	문화재명	활용 (有·無)	비고
국가	보물	한벽루	無(관광)	*청풍	지방	유형 문화 재	제천★	有(일부)	祭祀등
	중민	박도수#	有(생활)			신록사 극락전	有(사찰)		
		정원태#	有(생활)			황강영당	無	이건	
지방	유형 문화 재	금남루		*청풍	기념 물	덕주산성	無		
		금병헌	無(관광)			지양영당	有(일부)	祭祀	
		팔영루				박약재	無		
		청풍★	有(일부)			관란정	無		
		도화리#				망월산성	無(관광)	*청풍	
		황석리#	無(관광)			배론성지	有(종교)	천주교	
		후산리#				민속 명오리#	無	공가	
		중전리#	有(일부)			대한통운 제천영주소	有(일부)		
		김세균#	有(생활)			제천염연초생 산조합 구사옥	無		
		지곡리#	無(관광)			제천염연초생 산조합수납취 급소	無		
응청각		중민(중요민속문화재), 민속(민속문화재)							

#(고가), ★(향교), *청풍(청풍문화재단지)

현재 제천시에는 11점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6점, 명승 2점, 중요민속문화재 2점, 천연기념물 1점), 50점의

1) 석회암층의 발달로 자연동굴이 형성되면서 선사시대 주거지로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청풍일원은 남한강에 연해 있어 구석기인들이 일찍부터 자리잡았다. 남한강의 강물을 따라 제천지역은 일찍부터 선사문화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이다. - 제천시지 편찬위원회, 제천시지(上), 초판, 대유출판사, 제천, 2004, p.45
 2) 박인호, 제천 지역사 연구, 초판, 이회, 서울, 2005, pp.55~56
 3) 태종 13년에 제주를 제천으로 부름
 4) 1995년 제천시와 제천군(제원군)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제천시가 되었다.
 5) 2012년 11월 말 기준은 137,798명(남 69,271, 여 68,527)이다. - 제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6)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4, pp.46~75

7) 일본 동경대 출신의 사회학자(1894년~1966년)로 1940년대 제천을 여행하고 쓴 답사기(朝鮮農村社會の研究, 未來社, 1944) 가운데 일부분이다. - 내제문화연구회, 1940년대 堤川踏査記, 이창식 역, 내제연구 제10호, 1998, p.228
 8) 충주댐 건설로 문화유산들이 수몰위기에 몰리자 청풍 수몰지역내 산재한 문화재들을 한국(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으로 1985년에 이전·복원하였다.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38점, 기념물 9점, 무형문화재 1점, 민속문화재 2점), 2점의 문화재자료, 3점의 등록문화재 등 총 66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연유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건축문화재는 <표 1>과 같이 총 27점이며 이 중 11점이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다. 문화재단지에 있는 건축문화재들은 본래의 기능이 소실된 채 관광자원으로만, 이외의 장소에 있는 산성, 영당, 정자 등 또한 기능이 없어졌거나 향교와 같이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일부 수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종교 및 주거건축들은 대부분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제천은 도시의 역사에 비해 도시경관은 대부분 근·현대기의 짧은 시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도심에서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얼마 전까지 경제논리에 의해 이러한 흔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시민의식 조사 및 분석

3.1.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사용가능한 설문지 183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을 이용했으며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⁹⁾ 분산분석(ANOVA)¹⁰⁾을 통하여 결과를 추출하였다.

3.2. 설문조사 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거주기간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남자는 90명(49.2%), 여자는 93명(50.8%)이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86명(47.0%), 50~59세 33명(18.0%), 40~49세 32명(17.5%), 30~39세 20명(10.9%), 60세 이상 12명(6.6%)의 순이었다. 직업은 교육 74명(40.4%), 기타 39명(21.3%), 가정 23명(12.6%), 제조 및 상업 15명(8.2%), 정치 및 행정 14명(7.7%), 공학 및 의약 7명(3.8%), 1차 산업 6명(3.3%), 역사 및 문화 4명(2.2%), 법률 및 경제 1명(0.5%)의 순이며,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90명(49.2%), 10~20년 미만 41명(22.4%), 5~10년 미만 25명(13.7%), 1~5년 미만 20명(10.9%), 1년 미만 6명(3.3%), 무응답 1명(0.5%)의 순이었다.

9)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
10) 두 개 이상 집단들의 평균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

(2) 건축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일반사항

제천시 문화재정책의 중요도 및 인지도, 응답자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를 조사하였다.

1) 건축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 추진의 중요도

제천시에서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민의견 수렴 정도' 55명(30.1%), '정책추진 문제점 시정 및 보완 노력' 50명(27.3%), '정책 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38명(20.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천 시민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정도와 정책추진 문제점의 시정 및 보완 노력,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2> 설문 대상자의 일반사항

성별	구분	응답수		응답률(%)				
		응답수	응답률(%)	구분	응답수	응답률(%)		
남자	남자	90	49.2	연령	30세미만	86	47.0	
	여자	93	50.8		30~39	20	10.9	
	합계	183	100		40~49	32	17.5	
직업	가정	23	12.6		50~59	33	18.0	
	교육	74	40.4		60세이상	12	6.6	
	제조·상업	15	8.2		합계	183	100	
	법률·경제	1	0.5		거주기간	1년미만	6	3.3
	역사·문화·예술	4	2.2			1~5년	20	10.9
	공·의·약학	7	3.8			5~10년	25	13.7
	정치·행정·공무	14	7.7			10~20년	41	22.4
	1차 산업	6	3.3			20년이상	90	49.2
	기타	39	21.3			무응답	1	0.5
	합계	183	100			합계	183	100

<표 3> 건축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 추진의 중요도 및 인지도

정책 추진의 중요도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구분	응답수	응답률(%)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시민의견 수렴 정도	55	30.1	1. 매우 잘 알고 있다	1	0.5
2. 정책의 일관성	20	10.9	2. 잘 알고 있다	6	3.3
3.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	17	9.3	3. 보통이다	62	33.9
4. 정책추진 문제점 시정 및 보완 노력	50	27.3	4. 모른다	82	44.8
5.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 적절성	38	20.8	5. 전혀 모른다	32	17.5
6. 기타	1	0.5	무응답	2	1.1
합계	183	100	합계	183	100

2)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른다' 82명(44.8%), '전혀 모른다' 32명(17.5%), '보통이다' 62명(33.9%), '잘 알고 있다' 6명(3.3%), '매우 잘 알고 있다' 1명(0.5%)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ANOVA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정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3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

3) 문화재의 관심도

평소 문화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우 관심이 많다’ 6명(3.3%), ‘관심이 많다’ 30명(16.4%), ‘보통이다’ 127명(69.4%), ‘관심이 없다’ 19명(10.4%), ‘전혀 관심이 없다’ 1명(0.5%)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평소 문화재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NOVA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문화재의 호감도

평소 문화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호감, 좋아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우 좋아한다’ 14명(7.7%), ‘좋아 한다’ 76명(41.5%), ‘보통이다’ 87명(47.5%), ‘좋아 하지 않는다’ 6명(3.3%)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평소 문화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test와 ANOVA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거주기간에 따라 호감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인식도 조사

1)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인지도

27점의 건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평소 알고 있는 건축문화재와 일 년 동안 방문 횟수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도심에서는 ‘제천향교’¹¹⁾와 ‘대한통운제천영업소’¹²⁾가, 도심 외곽에서는 ‘배론성지’와 ‘청풍문화재단지’ 내의 일부 건축문화재들이 인지 및 방문횟수가 많았다. 도심 인근의 사례들¹³⁾과 대부분의 도심 외곽 사례들은 특별한 방문 목적 없이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배론성지’는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 성지로 전국의 성지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넓은 옥외공간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벽루를 포함한 망월산성 일원의 청풍문화재단지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대상지의 문화재들을 이전하여 복원한 곳으로 개개 건축물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가 제천의 대표적 장소이다. 특히 출입구를 포함한 주동선 상에 있는 ‘팔영루→금남루→한벽루, 응청각, 금병헌’ 등이 인지

- 11)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풍선비대학, 한문교실반 등을 운영
- 12) 택배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제천염연초생산조합구사옥’과 ‘제천염연초수납취급소’는 현재 비어 있다.
- 13) 주거(정원태가옥, 박도수가옥, 김세균교가)와 문중의 제실(중전리교가)로 사용하고 있고 명오리교가는 현재 비어 있다.

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 『제천시 문화재정책의 인지도』의 「연령별」 ANOVA 결과표

구분	항목	평균값	P값(유의확률)	비고
ANOVA	연령	30세 미만	2.08	*P값<0.05,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30~39세	2.15	
		40~49세	2.38	
		50~59세	2.33	
		60세 이상	3.00	

<표 5> 문화재의 관심도 및 호감도

문화재의 관심도			문화재의 호감도		
구분	응답수	응답률 (%)	구분	응답수	응답률 (%)
1. 매우 관심이 많다	6	3.3	1. 매우 좋아 한다	14	7.7
2. 관심이 많다	30	16.4	2. 좋아 한다	76	41.5
3. 보통이다	127	69.4	3. 보통이다	87	47.5
4. 관심이 없다	19	10.4	4. 좋아 하지 않는다	6	3.3
5. 전혀 관심이 없다	1	0.5	5. 매우 좋아 하지 않는다	0	0
합계	183	100	합계	183	100

<표 6> 『문화재의 관심도』의 「연령별」 ANOVA 결과표

구분	항목	평균값	P값(유의확률)	비고
ANOVA	연령	30세 미만	3.06	**P값<0.1,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30~39세	2.90	
		40~49세	3.19	
		50~59세	3.18	
		60세 이상	3.50	

<표 7>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인지도

구분	인지*					구분	방문횟수(년)					
	유	무	1회	2회	기타		유	무	1회	2회	기타	
도심	제천향교	83	32	60	9	14	한벽루	67	15	44	9	14
	제천염연초생산조합구사옥	14	6	10	1	3	청풍향교	68	23	55	6	7
	제천염연초수납취급소	10	3	6	2	2	후산리교가	18	6	14	2	2
	대한통운	41	9	27	6	8	팔영루	60	16	45	8	7
	제천염연소	17	11	13	2	2	도화리교가	25	4	17	3	5
	정원태가옥	14	12	13	0	1	응청각	27	10	19	4	4
도심인근	박도수가옥	12	5	11	0	1	금병헌	31	8	22	4	5
	명오리교가	14	6	11	1	2	금남루	38	14	29	4	5
	중전리교가	14	4	14	0	0	지곡리교가	17	3	11	2	4
	김세균교가	21	6	16	3	2	황석리교가	16	5	13	2	1
	신록사극락전	20	3	14	3	3	망월산성	5	2	5	0	0
	박약재	114	30	80	22	12						
도심외곽	배론성지	32	11	26	4	2						
	자양영당	6	1	3	2	1						
	관란정	13	5	10	2	1						
	덕주산성	3	3	2	1	0						
황강영당	3	3	2	1	0							

* 각 건축문화재에 대한 설문 대상자의 인지 유·무와 년 방문 횟수 조사
 유(有)는 인지하고 있으면서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이며, 무(無)는 인지하고 있으나 방문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함

2)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방문 목적

건축문화재에 대한 주요 방문목적은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조사로 결과는 <표 8>과 같다. 1순위 결과로는 ‘여행(관광)’ 99명(54.1%), ‘교육’ 31명(16.9%), ‘그냥 스쳐지나감’ 26명(14.2%), ‘기타’ 8명(4.4%), ‘업무’ 4명(2.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방문목적은 관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이었다. 기타로는 ‘종교행사’와 ‘결혼식 행사’ 등이 있었다.

3) 이외 건축물의 문화재 지정 여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들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있다’라고 18명¹⁴⁾이 응답하였다. <표 9>와 같이 연구범위에 적합한 것으로 제천시 인근의 ‘구 철도관사’와 ‘일본식 상가’, 왕암동의 ‘왕암 선돌’ 등은 문화재적 가치는 낮지만 제천의 역사적 흔적들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분석된다.¹⁵⁾

4) 기억에 남는 건축물

현재는 없어졌지만 기억에 남는 건축물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있다’라고 응답한 9명¹⁶⁾ 가운데 연구범위에 적합한 것으로 ‘구 조흥은행’, ‘의림초등학교 구교사’, ‘명보극장’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현재 철거된 후 현대식 건축물로 신축되거나 공터로 남아 있지만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다.

5) 제천시 대표 건축물

제천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시민들은 제천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의림지(21.9%)’와 ‘청풍문화재단지(10.9%)’가 가장 많았고 일반 건축물 또는 장소로는 ‘세명대학교 정문’, ‘차 없는 거리’, ‘한방엑스포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인 경우에는 도심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선호하였지만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장소가 선택되었다.

<표 8>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방문 목적

구분	응답수			응답률(%)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여행(관광)	99	24	15	54.1	13.1	8.2
2. 교육	31	42	21	16.9	22.9	11.5
3. 업무	4	10	9	2.2	5.5	4.9
4. 그냥 스쳐지나감	26	49	53	14.2	26.8	29.0
5. 기타	8	2	13	4.4	1.1	7.1
무응답	15	56	72	8.2	30.6	39.3
합계	183			100	100	100

<표 9>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건축물 및 기억에 남는 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건축물		기억에 남는 건축물	
항목	이유	항목	이유
구철도관사, 일본식 상가	역사 흔적	구 조흥은행	지붕 독특, 자주 다님
왕암 선돌	선돌 유적	의림초등학교구교사	50년대
서부시장	1950년 상권	명보극장	옛 극장
홍사구 묘	의병	청풍 수물지역	옛 마을
청풍벚꽃거리	관광	제천SBS촬영장	옛 생활
박달재	관광	늘봄가든	귀신체험

<표 10> 제천을 대표하는 건축물/장소

구분	항목			응답수 (응답률,%)	
	항목	이유	비고		
문화재	건축	청풍문화재단지	제천10경 등	보물 등 [※]	20 (10.9%)
		제천향교	교육시설	충북 유형 105 [*]	2
		배론성지	관광지	충북기념물 118 [※]	2
		청풍향교	·	충북 유형 64 [※]	1
		자양영당	의병	충북기념물 37 [※]	1
	기타	의림지	교과서 등	명승 20호#	40 (21.9%)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보물 459호#	1	
	소계			67 (36.6%)	
일반	건축	세명대, 정문	유동인구	신월동#	4
	장소	차 없는 거리	전시회 등	중앙로(문화의 거리)*	4
	장소	한방엑스포공원	한방	왕암동#	3
	장소	박달재	인지도	불암, 백운면 [※]	2
	건축	제천시민회관	중심부	중앙로2가*	2
	장소	중앙공원	유동인구	중앙로2가*	2
	건축	정방사	경관	수산면 [※]	1
	건축	제천역	유동인구	영전동*	1
	장소	중앙시장	인지도	중앙로1가*	1
	장소	청전동	유동인구	청전동*	1
	건축	제천역사	철도문화	영전동*	1
	건축	조흥은행	消滅	명동(신한은행)*	1
		소계			23 (12.6%)
		무응답			93
	소계			93 (50.8%)	
	합계			183 (100%)	

범례 * (도심), # (도심 인근), ※ (도심 외곽)

14) 이 중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응답(의림지, 청풍문화재단지,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제천향교)이 8회, 무응답 3회가 포함되어 있다. ‘청풍벚꽃거리’가 2회이며, 나머지는 모두 각 1회 응답하였다. 응답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시민들의 의견으로 참고 가능할 것이다.
 15) ‘홍사구 묘’는 의병과 관련되어 있으나 연구범위를 벗어나고 ‘청풍벚꽃거리’와 ‘박달재’는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서부시장’은 1950년대 제천의 대표적 상권으로 현재는 쇠락해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6) 이 중에 무응답(‘있다’라고 하였지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음)이 1회 있으며 ‘청풍 수물지역’의 대표 건축물들은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전·복원된 상태이고 ‘제천 SBS촬영장’은 촬영장으로, ‘늘봄가든’은 음식점에서 사쿠카페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고 있다. ‘구조흥은행’이 3회이며, 나머지는 모두 각 1회 응답하였다. 응답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시민들의 일부 의견으로 참고 가능할 것이다.

6)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부 및 방법

제천시의 건축문화재들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매우 그렇다’ 44명(24.0%), ‘그런 편이다’ 95명(52.0%), ‘보통이다’ 35명(19.1%), ‘그렇지 않다’ 4명(2.2%),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1%)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들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ANOVA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연령과 직업에 따라 보존과 활용 여부의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대와 교육(학생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 및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건축문화재들의 보존과 활용 여부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외관만 보존' 57명(31.1%), '외관은 원형보존, 내부는 현대적 활용' 81명(44.3%), '외관 및 내부 모두 현대적 개조' 14명(7.7%), '이전 보존하고 현대 건축 신축' 6명(3.3%), '기타' 18명(9.8%)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의 외관은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 의견으로 '외관 및 내부 모두 원형보존' 방안이 있으며 이 중 1명은 '내부 관람 불가', 2명은 '내부의 체험 및 관람 가능' 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표 11>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부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매우 그렇다	44	24.0
2. 그런 편이다	95	52.0
3. 보통이다	35	19.1
4. 그렇지 않다	4	2.2
5.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무응답	3	1.6
합계	183	100

<표 12> 『건축문화재 보존과 활용 여부』의 「연령별, 직업」 ANOVA 결과표

구분	항목	평균값	P값(유의확률)	비고
ANOVA	연령	30세 미만	4.17	*P값<0.05,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30~39세	3.89	
		40~49세	3.94	
		50~59세	3.59	
		60세 이상	3.75	
	직업	①	3.91	**P값<0.1,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②	4.20	
		③	3.54	
		④	4.00	
		⑤	3.75	
범례	직업-①가정(여성), ②교육, ③제조·상업, ④법률·경제, ⑤역사·문화·예술, ⑥공·의·약학, ⑦정치·행정, ⑧1차산업, ⑨기타			

7) 건축문화재의 내부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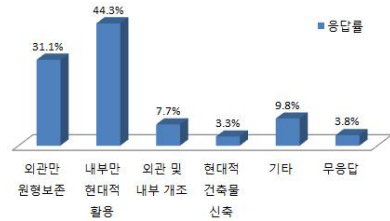
제천시의 건축문화재들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용도로 내부(실내)를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4>와 같다. 1순위 결과17)를 살펴보면, '건축물 본래의 용도' 114명(62.3%), '문화 및 집회시설' 44명(24.0%), '근린생활시설' 10명(5.5%), '숙박시설' 6명(3.3%)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가 본래의 용도로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박물관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관', '여

17) 1순위~3순위를 합한 통계에서도 '건축물 본래의 용도(27.1%)'와 '문화 및 집회시설(26.2%)'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행안내소', '체험 공간', '교육 공간', '휴게 공간'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13> 건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방법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건축물 외관만 원형 보존한다 (건축물 내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57	31.1
2. 건축물 외관은 원형 보존하고 내부만 현대적으로 활용한다	81	44.3
3. 건축물 외관 및 내부 모두 현대적으로 개조한다	14	7.7
4. 건축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보존하고 현 장소에는 현대적인 건축물을 신축한다	6	3.3
5. 기타	18	9.8
무응답	7	3.8
합계	183	100



<표 14> 건축문화재의 내부(실내) 활용 방안

구분	응답수			합계	응답률(%)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건축물 본래의 용도	114	20	15	149	62.3	10.9	8.2	27.1	
2. 문화·집회시설 (박물관 등)	44	90	12	146	24.0	49.2	6.6	26.6	
3.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	10	31	46	87	5.5	16.9	25.2	15.8	
4.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6	14	57	77	3.3	7.7	31.2	14.0	
5. 기타	도서관, 독서실		1	1	2	0.5	0.5	0.4	
	여행안내소		2	2			1.1	0.4	
	체험 공간		2	2			1.1	0.4	
	교육, 휴게, 다양한 활용, 없다(각1회)			4	4			2.0	0.8
	무응답(기타)			9	9			4.9	1.6
무응답 (전체 항목)	9	27	35	71	4.9	14.8	19.2	12.9	
합계	183	183	183	549	100	100	100	100	

(4) 도시경관과 건축문화재의 상관관계 조사

1) 제천시 가로경관의 만족도

현재 제천시의 도시 가로경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매우 만족한다' 3명(1.6%), '만족한다' 21명(11.5%), '보통이다' 101명(55.2%), '불만족한다' 48명(26.2%), '매우 불만족한다' 6명(3.3%)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만족한다' 이상(13.1%)보다 '불만족한다' 이하(29.5%)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민들은 대체로 현재의 가로경관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제천만의 독특한 특색이 없음'¹⁸⁾과 '조화 및 통일성이 없고 난잡함'¹⁹⁾이 가장 많았으며 '건물 형태 및 입면(외관)', '색채(색감)', '가로수(조경)', '간판', 'Street Furniture(가로등, 전화박스)', '스카이라인' 등

18) 유사 응답으로 '변화 없음', '보편적 느낌', '개성 없음' 등이 있다.

19) 유사 응답으로 '산만함', '일관성이 없음', '제멋대로임' 등이 있다.

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 시민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가로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T-test와 ANOVA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거주기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도시가로에서 건축문화재의 역할

제천시의 역사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도시가로에서 건축문화재들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매우 잘하고 있다' 1명(0.5%), '잘하고 있다' 18명(9.8%), '보통이다' 87명(47.5%), '잘하고 있지 않다' 55명(30.1%), '매우 잘하고 있지 않다' 12명(6.6%)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잘하고 있다' 이상(10.3%)보다 '잘하고 있지 않다' 이하(36.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민들은 대체로 현재 도시가로에서 건축문화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ANOVA 분석결과 <표 16>과 같이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문화재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를 보였으며 특히, 1년에서 10년 미만의 거주자들이 다른 거주기간의 그룹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15> 제천시 가로경관의 만족도 및 도시가로에서 건축문화재의 역할

가로경관의 만족도			도시가로 건축문화재의 역할		
구분	응답수	응답률(%)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매우 만족한다	3	1.6	1. 매우 잘하고 있다	1	0.5
2. 만족한다	21	11.5	2. 잘하고 있다	18	9.8
3. 보통이다	101	55.2	3. 보통이다	87	47.5
4. 불만족한다	48	26.2	4. 잘하고 있지 않다	55	30.1
5. 매우 불만족한다	6	3.3	5. 매우 잘하고 있지 않다	12	6.6
무응답	4	2.2	무응답	10	5.5
합계	183	100	합계	183	100

<표 16> 『도시가로 건축문화재의 역할』의 「거주기간」 ANOVA 결과표

구분	항목	평균값	P값(유의확률)	비고
ANOVA	거주기간	1년 미만	2.60	*P값<0.05,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1~5년 미만	3.05	
		5~10년 미만	2.91	
		10~20년 미만	2.54	
	20년 이상	2.56		

3) 건축문화재와 인접 현대 건축물의 연관성

건축문화재와 인접한 현대 건축물의 형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매우 밀접하다' 21명(11.5%), '밀접하다' 64명(34.9%), '보통이다' 51명(27.9%), '밀접하지 않다' 31명(16.9%), '매우 밀접하지 않다' 6명(3.3%)로 조사되었으며 시민들의 과반수 정도(46.4%)가 '밀접하다' 이상의 긍정

적인 응답을 하였다.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와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대부분 '도시미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²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건축문화재가 지닌 역사성 및 지역의 대표성 등을 통한 인지도'²¹⁾ 등이 있었다. 긍정적인 응답한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건축문화재 중심으로 문화지구를 지정하자', '형태와 건물높이 등이 어우러지게 하자', '사라진 건축문화재도 복원하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T-test와 ANOVA 분석결과 <표 18>과 같이 성별과 직업에 따라 건축문화재와 인접 건축물 형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차를 보였는데 특히, 근소한 차이이지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의·약학'과 '1차산업'²²⁾의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17> 건축문화재와 인접 현대 건축물의 연관성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매우 밀접하다	21	11.5
2. 밀접하다	64	34.9
3. 보통이다	51	27.9
4. 밀접하지 않다	31	16.9
5. 매우 밀접하지 않다	6	3.3
무응답	10	5.5
합계	183	100

<표 18> 『건축문화재와 인접 현대 건축물의 연관성』의 「성별, 직업」 T-test와 ANOVA 결과표

구분	항목	평균값	P값(유의확률)	비고
독립표본 T-test	성별	남자 3.58 여자 3.17	*0.008	*P값<0.05, 리커트 5점 척도 사용
	ANOVA	직업	① 3.57	
② 3.53			⑦ 3.21	
③ 2.64			⑧ 3.83	
④ 4.00			⑨ 2.97	
⑤ 3.50				
범례	직업-①가정(여성), ②교육, ③제조·산업, ④법률·경제, ⑤역사·문화·예술, ⑥공·의·약학, ⑦정치·행정, ⑧1차산업, ⑨기타			

4. 건축문화재의 시민의식 조사에 대한 종합 분석

4.1. 건축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일반사항 분석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도,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평소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천시가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

20) 유사 응답으로 '신·구의 어울림', '이질적이면 어색하고 경관상 문제가 있음', '자연스럽고 깔끔해 보임' 등이 있다.
21) 역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시선을 끌고 인지도를 높여 건축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2) '법률·경제'의 직업군에 속하는 응답자는 1명으로 의미가 없다.

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라고 응답하였다.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 보다는 정책 추진의 초기부터 공청회 등과 같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의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정책에 대해서는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와 같은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이상 조사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시 당국은 정책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60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소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관심이 없다’ 보다는 ‘관심이 많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관심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층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 호감도 조사에서도 ‘좋아 한다’와 ‘매우 좋아 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대다수의 제천 시민들은 문화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및 관심도에서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6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인식도 분석

건축문화재의 인지도, 방문목적,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축물, 기억에 남는 건축물, 제천을 대표하는 건축물,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부, 보존과 활용 방법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축문화재는 도심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는 인지도에 차이가 없었고 현재 어느 정도 활용되고 쉽게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심 외곽의 ‘배론성지’는 성지순례지로, ‘청풍문화재단지’의 건축문화재들은 유명 관광지로 인지 및 방문횟수가 많았다. 도심의 ‘제천향교’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통운제천영업소’는 제천역과 전통시장 인근 가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이 쉽고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목적으로는 여행

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이었다. 좀 더 많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들 이외에 건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축물로 ‘구 철도관사’, ‘일본식 상가’, ‘왕암 선돌’이 조사되었다.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제천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기억에 남는 건축물로 <그림 3>의 ‘구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의림초등학교 구교사’(현 주차장), <그림 4>의 ‘명보극장’(현 홈마트)이 조사되었으며 현재 이 터에는 역사성과 특색 없는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되었겠지만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1969년의 조흥은행(左)과 현재(右, 신한은행)

<그림 4> 명보극장터 (현재 홈마트)

제천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시민들은 일반 건축물보다 문화재를 더 선호했으며 특히, ‘청풍문화재단지’를 가장 선호했다. 이는 평소 일반 건축물보다 문화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좀 더 제천의 대표적 인지요소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 차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건축물 가운데서도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건축물 등을 제천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런 곳에서의 역사적 흔적 찾기가 필요하며 반대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들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건축문화재의 외관은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대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 및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K-Pop 등 한류의 유행과 맞물린 한국문화의 사회적 관심 증대와 교육에 연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의 내부가 활용된다면 본래의 용도 또는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제천시의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건축문화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도서관’, ‘여행안내소’, ‘체험공간’, ‘교육공간’, ‘휴게공간’ 등 또한 활용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심 속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7>과 같이 등록문화재인 ‘제천엽연초생산조합구사옥’과 ‘제천엽연초수납취급소’는 시민들의 접근이 많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외관만 원형 보존되고 내부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 14>와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재 본래의 용도로의 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엽연초와 관련된 박물관으로의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9>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건축물로 도심의 ‘구철도관사’ 등이 조사되었는데 문화재 지정 검토 및 철도 관련 박물관²³⁾ 등으로의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 제천엽연초 생산조합구사옥 <그림 6> 제천엽연초 수납취급소 <그림 7> 인천근대건축물탐방거리-구일본18은행

4.3. 도시경관과 건축문화재의 상관관계 분석

과반수의 시민들은 현재의 제천시 가로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대체로 현재의 가로경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는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제천만의 특색이 없고 난잡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제천의 역사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도시가로에서 건축문화재의 역할이 보통이라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 보다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거주기간에 따라라도 건축문화재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를 보였는데 특히, 1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의 그룹들이 1년에서 10년 미만의 거주자들보다 부정적이었다. 이는 1년 미만의 거주기간이 짧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타 지역과 별 차이 없는 가로경관이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천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사적 흔적을 찾고 기존의 건축문화재들과 이들이 가로경관 구성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즉, 장기적인 도시경관 계획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와 인접한 현대 건축물의 형태는 연관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도시미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건축문화재의 역사성 및 대표성 등을 제시하였다. 건축문화재와 인접한 가로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가로의 역사성 등이 들어날 수 있는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천은 타 지역에 비해 건축문화재의 종류 및 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보존과 활용 방안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하지만 중소도시라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27점의 건축문화재를 포함해 기타 문화재와 설문에서 조사된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을 개별적인 보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확대된 방향 즉, <그림 7>과 같은 네트워크(Network)형의 보존과 활용 방식²⁴⁾을 채택한다면 제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건축문화재들과 같은 역사적 흔적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제천은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격전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의병중심지로서의 탄압 등에 의해 역사유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제천 시민들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의식수준에 따라 달리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문화재와 도시경관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천시가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시정 및 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제천 시민들은 문화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재정책의 인지도 및 관심도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60세 이하의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문화재의 인지도는 문화재와 도심과의 거리보다는 현재의 활용도 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재 별도의 용도 없이 외관만 보존되고 있

24) 역사적 흔적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이들을 연결시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제천에서는 제천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들을 선적으로 연결시켜 보존과 활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23) 근대기 철도 종사자들의 주거생활 및 주택 형식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의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건축문화재의 경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방문목적으로 관광과 교육이 많았는데 여행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할 것이다.

사라진 건축물 가운데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으로 ‘구 조흥은행’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례로 ‘구 철도관사’ 등이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복원 타당성 및 문화재 지정 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을 발굴하고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문화재들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외관은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또한 내부가 활용된다면 본래의 용도 또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이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미사용 중인 건축문화재들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제공할 수 방향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재의 제천시 가로경관에 대한 만족도와 가로경관에서 건축문화재의 역할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좀 더 많았다. 제천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경관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재와 인접한 가로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가로의 역사성 등이 표현될 수 있는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문화재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민, 소유주 즉,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논리보다 역사성과 정체성의 흔적으로서 보존과 활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의 시작은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비록 제천 지역의 건축문화재 수가 적을지라도 이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타 지역과 차별된 제천만의 도시 그리고 가로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인호, 제천 지역사 연구, 초판, 이회, 서울, 2005
2. 충북의 건축문화 편찬위원회, 충북의 건축문화, 초판, 성신기획, 충북, 1999
3.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유재건축연구실, 근대도시주택실측조사 보고서, 초판, 태양인쇄문화사, 청주, 2001
4. 제천군지편찬위원회, 제천군지, 초판, 상당인쇄사, 청주, 1969
5.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제천시지, 초판, 대유출판사, 제천, 2004
6. 충주댐 수물마을사 편찬위원회, 충주댐수물마을사(제천편), 초판, 국제문화인쇄사, 제천, 2001
7. 이왕기 외 4, 역사적 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계획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3호, 1997.3

8. www.okjc.net(제천시)
9. www.cha.go.kr(문화재청)

[논문접수 : 2013. 08. 24]
 [1차 심사 : 2013. 09. 21]
 [게재확정 : 2013. 10. 11]